



우리들의 도서관 - 오늘과 내일

이병목*

1 시작하는 말(序言)

2 우리들의 도서관

- 종이매체(인쇄매체)와 전자매체
- 실제도서관(전통도서관)과 가상도서관
- 정보기술
- 지식과 정보
- 사서
- 사서의 자질

3 끝맺는 말(結言)

참고문헌

1 시작하는 말 (序言)

1964년 9월 1일, 이 날은 제가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첫 강의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약 40여년, 정확히는 38년 9개월 11일이 지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개가 그지없고, 감회가 깊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당시 제 나이는 지금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여러분의 나이와 비슷한 스물여섯, 내일 이면 어느덧 육십다섯이 됩니다. 그 오랜 세월동안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여러모

* (前)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이 고별 강의의 내용은 원래, 필자가 2000년 10월 24일 중국 북경에서 '우리들의 사명' (我們的使命)이란 주제로 개최된 2000년도 중국 도서관학정보학대학원생 학술연토회(學術研討會)에서 '새 천년을 맞이하는 도서관' (迎接新千年到來的圖書館)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던 기조 강연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한편, 기조 강연의 원고는 2001년 1월 중국과학원문헌정보중심(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에서 발행하는 「도서정보공작」(圖書情報工作) 2001년 제1기, pp. 12-17에 수록되었고, 다시 2003년 4월 중국과학기술연구회(中國科技報研究會)에 의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2003년 4월 동연구회가 편찬하고 중국언실출판사(中國言實出版社)가 출판한 「중국과학기술발전정전문고」(中國科技發展精典文庫) 제2집에 전제(轉載)되었습니다.

필자는 1957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서 대학과정으로서는 최초로 창설된,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에 제1기 학생으로 입학하여 2003년 8월 31일 같은 학과 교수로 퇴임하게 되기까지, 무려 46년 6개월 동안 연세대학교와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사님들과 후배 교수들을 비롯한 학교와 주위 여러분들의 도움도 컸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제가 말이나 행동으로, 항상 그리고 모두에게, 표현은 하지 못해왔지만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왔고, 모름지기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마지막 강의의 제목은 “우리들의 도서관—오늘과 내일”입니다. 우리들의 도서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학습 대상이고, 연구 대상이며, 또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도서관이 과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반추하고,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성찰하며, 미래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예측해보는, 즉 총체적으로 우리들의 도서관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서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관심을 가장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미래인듯 합니다. 과거는 이미 경험하였고, 현재는 지금 진행중이어서 그 실상을 상당히 알고 있는 반면, 미래는 전인 미답(未踏)의 세계인 동시에 희망의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의 미래 문제, 특히 도서관의 미래를 보는 시각(視角)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래는 사안(事案)에 따라 내일 모래 혹은 내년 후년과 같은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가까운 미래(very near future, possible future)가 있는가 하면, 10년 20년 혹은 한 세대까지도 어느 정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foreseeable future, predictable future)가 있고, 100년 혹은 1000년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예측이 전연 불가능한 무한한 미래(indefinite future, unpredictable future)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미래는 고작 눈앞에 바로 다가와 있는 미래, 그리고 잘해야 약간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로 국한시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까운 미래조차 이를 예측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관해 논급하자면 과학적인 토대 위에, 적어도,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안식(眼識)과 혜안(慧眼)으로 그리고 직관력(直觀力)과 통찰력(洞察力)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구유(具有)하지 못한 저로서는 그마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자기 나름의 일가견(一家見)을 가진 인사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논지를 천명한 자료를 여럿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차선의 방법으로 그러한 주장과 논지를 소개하면서 제 견해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미래를 논급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部類)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도서

관의 미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대표적인 학자로는 전자에 「종이없는 정보체제를 향하여(Toward Paperless Information System)」¹⁾와 「전자시대의 도서관과 사서(Libraries and Librarians in an Age of Electronics)」²⁾ 저술로 유명한 일리노이대학교 명예교수 랭커스터(F. Wilfrid Lancaster)가 있고, 후자에 「미래도서관 : 꿈, 광기, 현실(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³⁾의 저자로 유명한 연구도서관집단(RLG, Inc.)의 선임분석가 크로포드(Walt Crawford)와 프레스노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도서관장 고먼(Michael Gorman)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자에는 자기의 주장을 단일(單一)의 저서로 집대성하여 내어놓은 대표적인 학자는 아직 찾을 수 없지만 랭커스터의 주장에 동조하는 추종자는 상당수가 있고,⁴⁾ 후자에는 「디지털 도서관 :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⁵⁾를 편저한 부산대학교 교수 김정근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전자의 대표적인 학자는 제가 과문한 탓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전문지상에 발표되는 논문들로⁶⁾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처럼 랭커스터 추종자들이 상당수 있는 듯 하고, 후자의 학자로는 도서관미래학자라고 부르는 어렵지만 “21세기의 가상도서관과 전통도서관을 논함”(論21世紀的虛擬圖書館與傳統圖書館)⁷⁾에서 그리고 한 학술보고회⁸⁾에서 양종도서관(兩種圖書館)을 상호결합한 혼합체를 주장한 무한대학 전(前)교수 황종충(黃宗忠)과 “새천년초 복합도서관의 봉사 및 발전 전술”(千禧年初複合圖書館的服務及發展策略)⁹⁾에서 양종도서관의 공존 모형으로 복합도서관을 주장한 대만 세신대학(台灣世新大學) 교수 고민(顧敏)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는 중국과학원문헌정보중심 교수 초경리(初景利)¹⁰⁾가 중국도서관학보에 기고한 “복합도서관의 개념 및 발전 구상”(複合圖書館的概念及發展構想)이란 논문에서 미래의 도서관은 전통도서관(실체도서관)과 숫자도서관(디지털도서관)을 결합한 복합도서관이 그 기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대도서관학이론」(現代圖書館學理論)¹¹⁾이란 역저(力著)를 저술한 중국과학원문헌정보중심(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주임 서인지(徐引箴)와 중국과학원대학원(中國科學院研究生院) 교수 괏국경(霍國慶)은 같은 책 말미부분에서 ‘도서관의 미래’(圖書館的未來)를 다루는 가운데 자기들은 크로포드, 고먼, 콕스(R. J. Cox)의 주장에 찬동하고, 전자출판물이 미래의 정보시대에 주류를 이룰 것이지만 인본도서(印本圖書)가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역사무대에서 퇴출(退出)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1985년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2000년대를 지향한 사서직의 역할”¹²⁾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에서 저는 미래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에 대해 랭커스터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라인(Maurice B. Line)¹³⁾처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장래, 즉

그 당시로서는 불과 15년 밖에 남지 않은 서기 2000년 무렵에도 우리의 주 도구인 책과 주 무대인 도서관은 소멸하지 않으며, 무대의 주인공인 사서 역시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고도화하는 정보사회에서 한층 더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도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의 그러한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며, 반가운 현상은 오히려 저의 생각을 이론과 체계로 더욱 공고히 해주고 지원해주는 학자들이 국내외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크로포드와 고먼은 기술일변도가 아닌 종합적인 시각으로, 심도있고 예리하게, 도서관의 미래를 예견하는 도서관미래학자로서, 저에게는 도서관미래학에 대한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김정근은 크로포드와 고먼의 미래도서관사상의 정수(精髓)들을 앞서 소개한 바 있는 그의 저서를 통해 저에게 친절히 안내해 준 동학(同學)입니다.

저의 얘기 전개에 있어서 배경 설명이 필요했던 관계로 서언이 다소 길어졌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도서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 둘 것은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의 상당부분은 앞서 소개한 크로포드와 고먼의 저서와, 고먼이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행한 특별강연(1996. 11.)¹⁴⁾ 내용에 크게 힘입었고, 때로는 김정근의 저서에서도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 우리들의 도서관

앞서 소개한 중국의 서인지(徐引籠) 주임과 광국경(霍國慶) 교수는 도서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중국에는 3요소설(三要素說)에서 6요소설(六要素說)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說)이 있음을 소개하고, 자신들은 정보자원, 이용자의 정보요구, 정보직원, 정보시설의 4요소를 제안했습니다. 저도 역시 예나 지금이나 도서관의 필수 구성요소는 도서관 자료, 시설, 직원(사서와 여타) 그리고 이용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한가지 요소를 더 추가한다면 예산을 넣곤 합니다. 인도학자 랑가나단의 말처럼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 이고 성장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를 이용한 정보기술이 도서관에 도입·활용됨에 따라 도서관을 구성하는 이들 요소 하나 하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미 나타난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현상을 놓고, 기술의 위력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광신하는 일부 문헌정보학 미래학자들은 도서관 장서의 중핵인 종이문헌체제의 소멸과 실체도서관(實體圖書館)인 전통도서관의 몰락은 물론, 필사기록물(筆寫記錄物)과 이용자와의 중개역할을 하는 사서(司書)의 퇴출(退出)까지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도서관의 미래를 논리적인 근거 아래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크로포드와 고먼은 이를 그러한 사람들의 '광기(狂氣)'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는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공존, 일차 자료(primary text)와

과생 자료(hyper text)의 공존, 실체도서관과 가상도서관(假想圖書館)의 공존, 소장과 접근의 공존, 사서에 의한 중개와 이용자에 의한 직접접근의 공존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도서관은 현재 과연 어떤 모습이며, 또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음에 몇 가지 소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이매체(인쇄매체)와 전자매체

도서관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서관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핵심적인 도서관 구성 요소로서 도서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도서관 자료란 곧 도서관이 소장한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이러한 매체는 역사적으로 점토판, 파피루스, 죽간(竹簡), 목牍(木牘), 견백(絹帛), 양피지(羊皮紙) 등을 거쳐 종이에 이르렀으며, 오늘날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체인 전자매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술과 전자매체에 매혹된 전자매체 기술자들은 전자매체의 한계와 단점은 접어둔 채, 그리고 종이매체(인쇄매체)의 특성과 장점은 망각한 채, 종이매체로 된 단행본, 잡지, 신문 등은 곧 사라질 것이며, 이에 따라 도서관 자료는 종이매체 중심에서 전자매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는 인쇄매체의 경우에 겪고 있는 도서관 자료비의 증가, 소장 공간의 증대, 정보의 최신성 결여 등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시간관계로 생략기로 하고, 대신 두 매체간의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록매체와 기록을 인지하는 독서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종이에 인쇄된 매체를 통한 독서는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매체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데이터나 단편적인 정보의 획득에 편리한 도구로 알려진 반면에, 종이매체는 지식 습득을 위한 지속적인 독서(sustained reading)에 최상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종이에 인쇄한 인쇄매체(print on paper)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리라는 증거는 우리 주위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판산업의 계속적인 성장이 그 예이고,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량의 증가가 그 예입니다.

과거에도, 텔레비전처럼 새로운 대중전파매체(大衆傳播媒體)와 마이크로물(microform)처럼 새로운 기록매체가 등장했을 때, 종이매체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처음 출현했을 당시, 일부 사람들은 앞으로는 라디오도 사라지고 출판되는 책도 그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측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측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흑백 티비(TV) 방영을 개시한 것은 1961년 12월로서, 그 이듬해인 1962년에는 외국으로부터 20,000대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해, 1962년도의 단행본 발행 종수는 2,966종이었으나 10년 후인 1972년도에는 무려 4,469종에 10,858,145부로 늘어났고, 그 20년 후인 1992년에는 1972년의 8배가 넘는 24,783종에, 부수는 12배가 넘는 131,752,198부로 늘어났던 것입니다.^{15), 16)}

물론 숫자, 시각, 청각 등의 데이터나 작은 단위의 정보들은 전자 방식의 매체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도서관에서 사전이나 서목류를 시디롬(CD-ROM)으로 활용하면 검색의 능률도 높이고 소장 공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대규모의 축적된 정보의 전달 매체로는 종이매체가 훨씬 우수합니다.

따라서 종이에 인쇄된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와의 관계는 크로포드와 고먼이나 김정근의 말대로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듯 '대체'나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와 '보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이매체가 주종(主宗)을 이루는 장서에 전자매체가 추가되어 강력한 장서를 구성하게 되고, 이는 곧 이용을 보다 진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실체도서관(전통도서관)과 가상도서관

도서관이 도서관 자료를 소장하고 사서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自明)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도서관하면 자료와 시설과 직원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종합체로서의 도서관을 인식하기 보다는 얼른 도서관 건물을 연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도서관(假想圖書館)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실체도서관(實體圖書館)의 벽은 허물어져 버리고, 궁극에는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크로포드와 고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장소로서의 도서관과 ‘벽없는 도서관’이 정반대로 대립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사실인즉, 도서관은 항상 자신의 벽을 넘어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왔다. 즉, 이동도서관, 관제호차(館際互借), 전화참고봉사 등등 도서관 공간을 넘어 봉사해왔던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상도서관 봉사프로그램을 우리의 기존 봉사에 추가하고, 가상도서관이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서관 공간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크로포드와 고먼은 또 “도서관은 단순히 데이터와 정보만을 소장하고 제공하는 곳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도서관은 배움의 장소이며, 그 안에서 이용자가 지적(知的)으로 변화하는 곳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에 대학도서관의 책임자인 도서관장을 때로는 단과대학장과 같은 학장(dean)이라고 호칭하고 대학사서에게 교수신분(faculty status)을 부여하는 이유도 이처럼 대학도서관이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이용자가 실생활과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얻고, 그에 관해 전문적인 조

언을 얻기 위해 찾는 곳입니다. 때로는 가벼운 읽을 거리를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위한 컴퓨터로서, 때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회합을 갖기 위한 집회의 장소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한 인간정신의 진수(眞髓)를 찾는 실제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실체'와 '가상'은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실제교회에 가상교회(TV교회)가 있으며, 유구한 역사를 지닌 실체대학에도 가상대학, 인터넷대학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현재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가상교회가 실제교회를 대체하거나, 가상대학이 실체대학을 대체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상대학은 실체대학의 벽을 뛰어 넘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체대학을 보완하는 보완적인 성격을 띄고 있지 대체하는 대체적인 성격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당한 양의 데이터와 정보가 현재 숫자화(디지털화)되고 있고, 일부 네트워크화된 가상도서관도 출현하고 있지만 장소로서의 도서관, 실체로서의 도서관은 아직도 여전히 번성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느 정도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미래에도 계속 건재(健在)할 것입니다.

정보기술

기술은 하나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기반구조로서 다양한 유형과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회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온 주요 기술을 사회적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거쳐 지금은 지식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렵사회는 사냥기술, 농경사회는 관개기술(灌溉技術), 산업사회는 기계기술, 그리고 정보사회는 컴퓨터와 통신기술 등이 사회변화에 큰 영향을 끼쳐 온 기술입니다.¹⁷⁾ 지식사회는 아마도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통합된 정보기술과 미지의 새로운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날 도서관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고객중심주의의 영향 아래 이용자를 위한 정보 및 지식봉사의 극대화에 진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도서관업무의 여러 영역에 정보기술을 도입·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꼭 명심해야 할 일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도서관에서의 기술은 어디까지나 도서관의 사명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술의 위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 왕왕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우(愚)를 범(犯)하는 경우를 봅니다.

랭커스터¹⁸⁾는 정보기술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째, 전통적인 정보서비스의 수정, 둘째,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도입, 셋째, 정보서비스의 미증개 — 이를테면, 사서에 의해 수행되던 서비스를 이용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 일, 넷째, 원격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도입이 이처럼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세번째 항목은 부정적일 수도 있음)만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보미증개가 과연 바람직하기만 한가라든가, 소장이 아닌 접근문

제, 저작권문제 등 근원적인 문제들이 정보기술의 도입에 내재(內在)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업무를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컴퓨터와 정보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운영과 정보봉사상의 영향, 특히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도입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봉사를 가능케 해야 하지만 크로포드와 고먼의 말처럼 어디까지나 조화롭고 인간적인 작업환경(harmonious, humanistic working environment)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요 철학자이며 학습과 독서문제 전문가인 동시에 브리태니카백과사전의 편집 책임자인 애들러(Mortimer J. Adler)는 배움에 임(臨)하는 인간의 마음은 네 가지 자산(資産, the four goods of the mind), 즉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지혜(wisdom)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¹⁹⁾ 그리고 그는 이 네 가지가 서로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며, 정보가 가장 가치가 적고 지혜가 가장 가치가 큰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한편, 애들러가 정보를 단일(單一)의 자산으로 다룬 반면에 크로포드와 고먼은 정보를 데이터(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가공할 수 있는 사실 혹은 원자료)와 정보(가공된 그리고 유용성을 갖게된 데이터)로 다시 구분하였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인간의 마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따라서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전달하는 데 특히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습의 계단'을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인간의 마음은 극히 중요해지고 컴퓨터의 역할은 줄어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식은 의미를 갖게 변형된 정보로서 기록되고 전달될 수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가 결코 그러한 전달에 이상적인 매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해는 세계적인 시각과 개인적인 조망이 통합된 지식으로서 전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이해로서 이루어진 완전함과 생성물을 의미하며, 역시 인간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컴퓨터가 석권하는 시대여서 그 속도가 마치 가장 가치있는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쩌다가 전산화하기에 가장 용이해진 정보, 가치로 치면 가장 작은 가치인 정보가 핵심처럼 되어버렸다고 설명합니다.

인용과 설명이 다소 길어졌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도서관의 필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도서관 자료가 데이터와 정보로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같은 맥락에서 도서관이 전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정보만을 다루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크로포드와 고먼의 말대로 "도서관은 기록된 지식이 어떠한 형태의 매체에 수록되어 있건 이를 보존, 배포, 활용하여 인간이 더욱 넓고 깊은 식견(識見), 즉 지식을 얻게 하는데 관여"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지식을 통해 이해에 도달하며, 궁극적으로는 지혜를 얻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수인 맥클루어(Charles R. McClure)²⁰⁾는 네트워크 사회의 특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정보관리와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지식관리와 지식제공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컬럼비아대학교 전(前)교수인 몬트(Ellis Mount)와 사서인 마소우트(Renée Massoud)는 그들의 저서 「전문도서관과 정보센터 개론」²¹⁾에서 미국의 전문도서관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지식센터(knowledge center)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문헌이나, 혹은 단순한 데이터나 정보만이 아닌, 보다 차원높은 지식을 제공하는 그리고 이를 위해 때로는 지식을 창출하는 확대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다가오는 지식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이 지식 및 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됨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의 수요에 적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서와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한층 더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사서

사서는 지식과 정보가 수록된 각종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매체, 즉 필사기록물을 주로 도서관이란 기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해주거나 접근시켜주는 도서관 경영의 주체로서 도서관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사(醫師)없는 병원을 상상할 수 없고, 교사(教師)없는 학교를 연상할 수 없듯이, 비록 우리 주위에 가상도서관과 가상사서(cyber librarian)가 실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서없는 도서관은 가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서관미리학자들은 전자도서관, 가상도서관, 벽없는 도서관, 숫자도서관(數字圖書館, 디지털도서관) 등등의 미명(美名)아래 실제도서관의 소멸론과 함께 사서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앞으로 전자매체가 종이매체를 대체하고, 가상도서관이 실제도서관을 대체하며,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들이 사서를 거치지 않고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서의 미래 곧,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주장과 예측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고, 이에 대해 크로포드와 고먼은 학자가 구사하는 언어치고는 매우 과격한 '광기' (狂氣)란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그들의 주장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물론 기술의 진보로 경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수많은 체제(시스템)들이 사회 각 분야에 등장하여 인간을 지원하거나 때로는 대신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에서도, 이러한 체제들의 상당수는 그 원형(prototype)의 기능을 방기(放棄)하게 하거나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신장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치 현금자동지급기(ATM)와 같은 무인은행, 텔레뱅킹(telebanking)과 같은 전자은행이 등장했다 해서 실제은행, 즉 전통적인 은행이 소멸하지 않았듯이, 도

서관의 경우에도 이용자에 의한 직접접근 방식의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실체도서관이 쓸모없이 되고 사서에 의한 중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먼 역시 「우리들의 영속적 가치 : 21세기의 사서직」²²⁾에서 “사서의 임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하고, 또 변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지식사회로의 이행(移行)과 같은 사회발전과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기술의 진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도서관은 소멸키는커녕 오히려 현재보다 그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며, 사서는 그러한 확대된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오고 있는 기존의 역할에 부가해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페이스 5 자문집단회사(諮問集團會社. Phase 5 Consulting Group Inc.)를 경영하고 있는 처치(Dough Church)²³⁾는 1998년에 미국과 캐나다의 기업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 이내에 기업도서관 사서들의 위상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기업도서관 사서들은 앞으로 자문가, 정보분석가, 정보교육가, 인트라넷 콘텐츠 관리자(intranet contents manager), 상품 기획 및 개발과 시장개발자, 지식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할들은 기업도서관 사서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대신하여 맡을 역할들이 아니라 기존의 역할에 추가해서 맡을 확대된 역할들이었습니다.

실체도서관은 사회에서 그 설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퇴출당하지 않고 그 번영을 계속 구가(謳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도서관은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실체도서관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회적 기관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²⁴⁾ 따라서 사람들이 그러한 실체도서관을 계속 필요로 하는 한 그 도서관이 지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서도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서의 자질

사서가 도서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서로서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질(資質)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상, 그러한 자질은 사서 당사자만의 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서를 채용하는 도서관이 그 도서관에 입직(入職)하는 사서들에게 기대하는 자질인 동시에, 사서를 양성하는 대학이 예비 사서들에게 구비시키고자 하는 자질이기도 합니다.

자질(혹은 소양, 능력-competencies)이란 미국의 네브래스카대학도서관이 발표한 「핵심 자질」(혹은 핵심 능력,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²⁵⁾에 의하면 ‘한 특정 직위에서 한 개인의 성공에 기여하는 지식(knowledge), 기능(skills), 개인적 특성(personal attributes)’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서의 자질에 대해 주요한 연구를 수행한 그리피츠(Jose-Marie Griffiths)와 킹(Donald W. King)²⁶⁾은 이러한 자질의 요소를 지식, 기능, 태도(attitudes)로 보았고, 미국 전문도서관협회²⁷⁾는 자질을 전문적 자질과 개인적 자질로 구분하여, 전자는 도서관과 정보의 여러 영역에 걸친 사서의 지식, 후자는 사서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기능, 태도, 가치를 그 요소로 보았습니다.

미국 법률도서관협회가 승인·발표한 「법률사서직의 자질」²⁸⁾에서는 지식, 기능, 능력(abilities), 개인적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s)을 자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열거하고, 이러한 자질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과정, 계속교육 및 경험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남대학교 교수 홍현진은 “21세기 정보전문직의 역할과 능력에 관한 연구”²⁹⁾에서 능력(competencies, abilities)과 태도(attitudes)를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능력의 주요 구성 요소를 지식과 기술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초청선임연구원 윤정옥은 “정보 전문가 소양기준에 관한 연구”³⁰⁾에서 사서를 포함한 정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은 기술, 지식, 가치관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서가 구비해야 할 자질의 내용으로 전술한 외국 학자와 기관들은 지식, 기능, 태도 혹은 개인적 특성을 공통적인 요소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학자들이 자질(홍현진은 능력, 윤정옥은 소양)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보거나 자질에서 제외한 ‘태도’ 혹은 ‘개인적 특성’을 그들은 자질의 핵심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도’란 일반 사전상의 정의를 따르다면 몸과 마음을 가지는 모양, 특히 정신적인 성향이나 자세를 말하며, ‘개인적 특성’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품성을 말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인성(人性)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성이 갖는 중요성은 비단 사서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을 지낸, 현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규가 자신의 대학을 “인성과 전공을 겸비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그의 포부를 밝힌 한 신문과의 회견 내용³¹⁾이나, 일부 기업들이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 지식이나 기술을 제쳐두고 인성을 보고 선발한다는 한 신문의 기사 내용³²⁾이나, 심지어 검사 임용에서도 그동안의 성적 위주 임용방식에서 집단 토론, 인성·적성 평가 등 새로운 전형방식을 도입키로 했다는 신문 보도³³⁾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임용³⁴⁾에 있어서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인적조건으로 ‘성품 및 신망도, 청렴도’를 고려토록 하고 있고, 승진심사기준³⁵⁾에 있어서도 ‘인품’ (국가관과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을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질로서의 인성이란 직무수행에 당장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과는 달리 대체로 가정교육과 초·중등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 틀이 형성되고, 대학에서는 주로 교양교육,

인문교육을 통해서 이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총장이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을 전공교육 못지 않게 강조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대학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게도 심화는커녕 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수한 기업들이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기 보다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른바 신세대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인내심과 지구력이 부족하며, 성실성과 책임감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여러 가지로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성은 자질의 중요한 한 요소이고, 때로는 사회에서 지식이나 기능보다 더 중시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서는 우선, 사서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지식과 기능만이 아니라 이에 못지 않게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사서가 된 이후에도 전문직의 특성에 따라 그가 지닌 지식과 기능을 끊임없이 갱신해야 하듯이 그가 지닌 인성도 평생을 두고 부단히 도야(陶冶)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서의 훌륭한 자질은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봉사의 수준과 직결되고, 이는 이용자의 만족으로 이어져서, 다시 사서에게 봉사의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전문직의 봉사에 대한 보람, 이것은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전문직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혜택이며, 축복인 동시에, 존재 이유(*raison d'être*)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되어 환자의 고통을 씻어 주고 못 보는 눈을 보게 해주어서 평생동안 남에게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서 살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 한평생 남에게 받기만 하기보다 베풀어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요 시인인 마종기의 산문집³⁶⁾에 나오는 안과의사인 그의 아들의 말입니다.

베푸는 대상이 다르고 베푸는 방법이 다를 뿐 사서도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그러한 축복과 자부심을 갖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를테면, 한 도서관 이용자가 백방으로 애써 찾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했던, 법원에 제출할 한 증거자료를 사서가 도서관에서 찾아내어 그 이용자로 하여금 남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던 자기 집을 도로 찾게 해준 것³⁷⁾을 어느 누가 축복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3 끝맺는 말 (結言)

피츠버그대학교 문헌정보학대학원 교수 콕스(Richard J. Cox)³⁸⁾는 21세기에 있어서 책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출판된 책, 지난 4세기동안 정보와 지식을 보급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온, 인간이 만든 인공물인 책이 21세기의 정보시대에도 계속해서 훌륭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한편, 크로포드와 고먼은 도서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도서관은 궁극적으로 지식의 증진과 문화의 보존에 시공간(時空間)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한 대학도서관장 프랜드(Frederick J. Friend)³⁹⁾는 중국 북경대학에서 개최되었던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사명’(21世紀大學圖書館的新使命)이라는 학술대회에서 도서관의 사명과 정보기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사명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봉사를 그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라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역사적인 사명은 매우 가치가 있고, 현대의 필요에도 여전히 적절하다. … 사서에게 있어서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비단 프랜드만의 견해가 아니고, 그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종합토론에서 내린 최종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환경이 변화하면 당연히 도서관과 사서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해야 합니다.⁴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도서관의 사명이 바뀌지 않는 한 일부 급진주의자들, 서투른 미래학자들이 주장하듯 이제까지의 역할을 송두리째 방기(放棄)하고, 새로운 역할만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역할에다 환경의 변화로 필요해진 새로운 역할을 추가하고 보완한다면 보다 나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곧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봉사가 될 것입니다.

복합도서관(複合圖書館, hybrid library)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의 도서관이 어떠한 모습이여야 할 것인가를 점검해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 러프버러대학 교수 오펜하임(Charles Oppenheim)과 스미슨(Daniel Smithson)⁴¹⁾은 “복합도서관이란 간단히 정의하면 전통도서관과 숫자도서관(디지털도서관)을 통합하는 하나의 방법(a means of integrating the traditional library with the digital library)이다”라고 했습니다. 복합도서관이란 용어는 1996년에 도서관계와 정보전문계에 최초로 등장한⁴²⁾ 이래, 그 원리가 처음에는 대학도서관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나중에는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복합도서관이 우리가 의식하고 있건 의식하지 않고 있건 간에, 우리 주위에도 이미 등장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상당수 대학도서관들이 현재 전통도서관과 함께 전자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역시 각각 기존의 전통도서관과 함께 신규로 전자도서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도서관의 발전은 확실히 기술론적인 발전보다는 문화적인 전환(cultural shift)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도서관이 성공을 거두려면 첫째, 종이자료 대신에 전자자료가 아니라 종이자료와 전자자료가 공존하는 도서관, 둘째, 벽이 없는 도서관이 아니라 벽을 뛰어넘는 도서관, 셋째, 데이터와 단편적인 정보만이 아닌 여과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서관, 넷째, 컴퓨터와 통신기술로만 이루어지는 봉사가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인간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는 도서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사회의 도서관에서 일하기 위해 사서가 구비해야할 기본적인 지식은 첫째, 지식과 정보의 특성, 구조, 내용(다양한 학술정보원과 공공정보원),⁴³⁾ 및 매체에 대한 지식, 둘째, 지식과 정보의 관리(수집, 조직, 보존, 이용)에 대한 지식, 셋째,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 넷째,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지식, 다섯째, 도서관(정보봉사기관)의 경영환경(내부환경과 외부환경)⁴⁴⁾에 대한 지식 특히, 이러한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법률,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서가 갖추어야 할 기능(技能)은 여러 학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들을 종합⁴⁵⁾해 볼 때 분석·연구·기획·조직·관리·감독 기능, 의사소통 기능, 대인관계 및 집단관계 기능,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기능, 강의 기능 등이 거론되고는 합니다.

아울러, 사서에게 바람직한 인성(人性)으로는 관종(館種)과 직무(職務)의 이동(異同)에 관계없이 봉사 정신, 책을 좋아하는 마음(好書心), 도서관을 사랑하는 마음(愛館心), 이용자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비롯하여 정확성, 책임감, 성실성, 신뢰성, 협동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까지 인류문화의 창달에 크게 이바지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서관이 문화의 뒷전에 처져 있지 않고 문화를 선도(先導)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무대로 일하는 사서는 과거 학자사서(學者司書)가 그러했듯이 문화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사서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Librarianship-Quo Vadis?)⁴⁶⁾ 이 시대 문헌정보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허버트 화이트(Herbert S. White) 박사가 던진 질문입니다. 도서관 경영, 감독, 도서관 자동화에 관한 150여권의 저서와 수많은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던진 그의 이 질문은 399쪽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로 엮어져 나올만큼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사서직에 처음 들어가기 위해서나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혹은 사서직의 최고 전문가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서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제가 “우리들의 도서관-오늘과 내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자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 주제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고별 강의를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학업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앞으로 혹은 지금, 사서 또는 정보전문가로서의 활동에도 많은 발전과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곧 창립 반세기를 맞이할 우리들의 영원한 배움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문헌〉

- 1 Lancaster, F. Wilfrid. *Toward Paperless Information System*. New York : Academic Press, 1978.
- 2 Lancaster, F. Wilfrid. *Libraries and Librarians in an Age of Electronics*. Arlington, VA : Information Resources Press, 1982.
- 3 Crawford, Walt and Gorman, Michael.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5.
- 4 한국문헌정보학회의 기관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韓國情報管理學會의 기관지인 **情報管理學會誌**, 한국도서관협회의 기관지인 **도서관문화** 등에 수록된 관련 제(諸)논문.
- 5 김정근 편저. **디지털도서관 :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 민음사, 1997.
- 6 필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중국도서관학회(中國圖書館學會)의 기관지인 **중국도서관학보(中國圖書館學報)**, 필자가 편집위원회 위원이어서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있는 중국과학원문헌정보중심(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의 기관지인 **도서정보공작(圖書情報工作)** 등에 수록된 관련 제(諸)논문.
- 7 黃宗忠. “論21世紀的虛擬圖書館與傳統圖書館(下).” **圖書館理論與實踐**, 1998(2) pp. 3-7.
- 8 黃宗忠. “黃宗忠教授應激來皖作學術報告.” **中國圖書館年鑑 2001**. 肅東發 主編. 北京 : 北京圖書館出版社, 2001, p. 84.
- 9 顧敏. “千禧年初複合圖書館的服務及發展策略.” **圖書情報工作**, 2000年 第3期 (2003. 3), pp. 5-8.
- 10 初景利. “複合圖書館的概念及發展構想.” **中國圖書館學報**, 2001年 第3期, pp. 3-6.
- 11 徐引篋, 霍國慶. **現代圖書館學理論**. 北京 : 北京圖書館出版社, 1999.
- 12 이병목. “2000년대를 지향한 사서직의 역할.” **도협회보**, 제26권 제6호 (1985. 6), pp. 13-23.
- 13 Line, Maurice B.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in a Post-Technological Society.” *Journal of Library Automation*, vol. 14 no. 4 (Dec. 1981), pp. 252- 267
- 14 Gorman, Michael. “Dreams, Madness, and Reality.” **동아대학교 개교 50주년기념 해외석학초청 특별강연 및 학술강연회자료집**. 부산 : 동아대학교도서관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6, pp. 18-30. 김정근 편저. **디지털도서관 :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 민음사, 1997, pp. 267-282에 재록(再錄).
- 15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산업40년사 ; 1959-1999**. 서울 : 동진흥회, 1999.
- 16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년감 1999**. 서울 : 동협회, 1999.
- 17 김성혁. “정보화사회에서 사서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지식공학과 지식공학자의 역할 수용태세를 중심으로-.” **情報管理學會誌**, 제10권 제2호 (1993. 12), pp. 69-85.
- 18 Lancaster, F. Wilfrid and Sandore, Beth. *Technology and Management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hampaign, IL : University of Illino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1997. 한국어역본 : 최은주, 김석영, 서은경 공역. **정보기술과 도서**

- 관정보서비스. 서울 : 구미무역(주) 출판부, 1998.
- 19 Adler, Mortimer J. *A Guidebook to Learning*. New York : Macmillan, 1986.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저,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와 김정근 편저, *디지털도서관 :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에* 상세히 소개됨.
- 20 McClure, Charles R. "Network Literacy : A Role for Libraries?" *Information Technology & Libraries*, vol. 13 no. 2 (Feb. 1994), pp. 115-126. 서은경,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사서의 새로운 역할." *국회도서관보*, 제32권 제4호 (1995. 6), pp. 69-85에서 재인용.
- 21 Mount, Ellis and Massoud, Renee. *Special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 An Introductory Text*. 4th ed. Washington, D.C. :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1999.
- 22 Gorman, Michael. *Our Enduring Values : Librarianship in the 21st Century*.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0.
- 23 Church, Dough. "From Librarian to Knowledge Manager and Beyond : The Shift to an End-User Domain." <<http://www.sla.org/ctor/conrier/v36/v36n2alb.htm>>
- 24 White, Herbert S. *Librarianship-Quo Vadis? : Opportunities and Danger as We Face the New Millenium*. Englewood, CO : Libraries Unlimited, Inc., 2000, p. 391.
- 25 Gesecke, Joan and McNeil, Beith. "Core Competencies and the Learning Organization."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vol. 13 no. 3 (Summer 1999), pp. 158-166.
- 26 Griffiths, Jose-Marie and King, Donald W. *New Directio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White Plains, N.Y. :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s, Inc. for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1986. 현재의 발행사는 Greenwood Press임.
- 27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Special Committee on Competencies for Special Librarians. *Competencies for Special Librarians of the 21st Century*, Full Report—May 1996. Washington D.C. : SLA, 1996.
- 28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Competencies of Law Librarianship*. Approved by the Executive Board March 2001, Tab34A. <<http://www.aalinet.org/prodev/competencies.asp>>
- 29 홍현진. "21세기 정보전문직의 역할과 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 (2000. 9), pp. 277-301.
- 30 윤정옥. "정보 전문가 소양기준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7권 제4호 (2002 겨울), pp. 41-62.
- 31 *문화일보*, 2003. 5. 28. "인성·전공 조화로 전문인 양성."
- 32 *문화일보*, 2001. 1. 5. "인성·적성 보고 사람 뽑는다."
- 33 *동아일보*, 2003. 1. 25. "검사임용에 집단토론·인성평가 도입."
- 34 *공무원임용령*. 개정 2002. 7. 10. 대통령령 제17633호. 제43조.
- 35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개정 2002. 12. 31. 행정자치부령 제00190호. 제23조.

- 36 마중기. **별, 아직 끝나지 않은 기쁨**; 마중기 산문집. 서울: 문이당, 2003, pp. 235-236.
- 37 Gitler, Robert L. and Shichi, Kakuro. "Nihon Kara No H?koku : Reports from Japan." *ALA Bulletin*, vol. 46 no.7 (July-August, 1952), pp. 238-241.
- 38 Cox, Richard J. "Taking Sides on the Future of the Book." *American Libraries*, vol. 28 no. 2 (Feb. 1997), pp. 52-53.
- 39 Friend, Frederick J. "New Mission? or Old Mission with a New Face?" In :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Missions of Academic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Oct. 25-28, 1998, Beijing, China*. Beijing : Peking University Press, 1998.
- 40 U. 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02-03 Edition*. Libraries on the Internet at <<http://www.bls.gov/oco/ocos068.htm>>
- 41 Oppenheim, Charles and Smithson, Daniel. "What is the Hybrid Librar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 25 no. 2 (April 1999), pp. 97-112.
- 42 Sutton, S. "Future Service Models and the Convergence of Functions : The Reference Librarian as Technician, Author and Consultant." In : K. Low (ed). *The Roles of Reference Librarians, Today and Tomorrow*. New York : Haworth Press, 1996, pp. 125-143.
- 43 U. 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02-03 Edition*. Libraries on the Internet at <<http://www.bls.gov/oco/ocos068.htm>>
- 44 Bryson, Jo. *Managing Information Service : An Integrated Approach*. Aldershot. Hampshire(England) : Gower, 1997, pp. 21-39.
- 45 Gesecke, Joan and McNeil, Beith. "Core Competencies and Learning Organization."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vol. 13 no. 3 (Summer 1999), pp. 158-166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 46 White, Herbert S. *Librarianship-Quo Vadis? : Opportunities and Danger as We Face the New Millenium*. Englewood, CO : Libraries Unlimited, Inc., 2000.

도서관인의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도서관문화 편집실입니다. | * 전화 : 02-535-4868 |
|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 | * 전송 : 02-535-5616 |
| 한 논문,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과 사진, 회 | * E-mail : w3master@korla.or.kr |
| 원, 인사, 도서관과 관계 되는 수필 또는 수기 | * 주소 : (137-702) 한국도서관협회 |
| 등을 보내주세요.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
| 도서관인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 담당 : 심요정 |